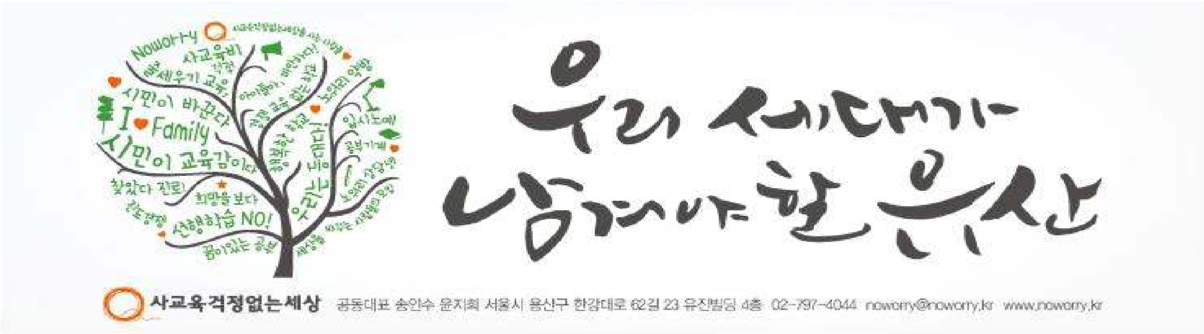


■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9.1.31.)

2019 수능 문제 중 수학 영역 12개 문항, 국어 영역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월 31일(목) 오전 11시에 본 단체 3층 대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9학년도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착수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함.

▲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수학 영역(가/나)'과 '국어 영역'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해 분석했으며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이 참여함.

▲ 분석 결과 수학 가형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됨.

▲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 국어 영역의 경우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법전원, 의전원, 행정고시 시험 지문을 공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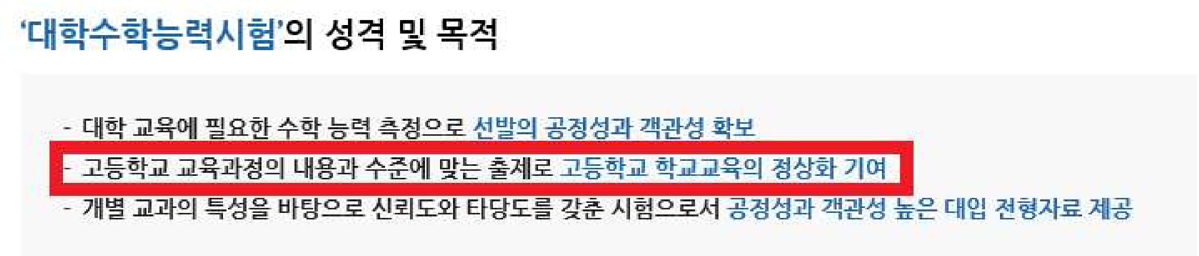
▲ 더불어 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오늘(1월 31일(목))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1일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학생·학부모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은 2019 수능 문제의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대비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학생·학부모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고교 교육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다수 학부모의 민원이 본 단체에 접수되었으며, 기자회견 직후 원고 모집 과정에서도 피해 당사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할 2019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는 이들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것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의 성격과 목적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국가는 학교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고(법 4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법 4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출제하는 수능은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학생·학부모

에게 발생한 피해도 국가가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림 1] 평가원이 밝힌 수능의 목적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 및 목적

-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로 고등학교 학교교육의 정상화 기여
-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자료 제공

- 자료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사교육걱정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2019 수능 중 '수학영역(가/나)' 60문항과 국어영역 45문항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에 의거해 분석했습니다. 분석 작업에는 현직 교사 및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 전문가 10명(수학 5명, 국어 5명)이 참여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정했으며, 과반 이상의 의견을 최종 판정 결과로 채택했습니다.

■ 분석 결과,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됨.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학 가형'은 30개 문항 중 7개 문항, '수학 나형'은 30개 문항 중 5개 문항, '국어 영역'은 45문항 중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각 영역에서 위반 문항으로 판정된 문제와 그 근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

[표 1] 2019 수능의 '수학 영역', '국어 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제와 그 근거

영역	문제 번호	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	위반 판정 근거
수학 가형	14	지수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수부등식에서 함수와 함수의 곱이 지수로 사용되는 것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소재**다. 함수 지수에 지수법칙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다.
	16	치환적분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어진 함수방정식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전혀 다루지 않으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다고 할 수 없다. 기술적인 조작을 하지 못하면 함숫값조차 구할 수 없다. 함숫값을 구할 수 없으면 이후 적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환적분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문제라 볼 수도 없다.
	18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	주어진 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는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으로 내분되는 삼각형의 변 사이의 비례 관계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으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다.
	19	삼수선의 정리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삼수선의 정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그 이전에 정삼각형의 넓이 분할에 따른 높이 구하기, 평행선 사이의 **삼각형의 등적변형 등 배경 지식과 다단계의 문제 풀이 전략이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다단계 문제 해결 전략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다.
	20	사인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삼각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주어진 구간 안에서, 그것도 간단한 방정식을 다루도록 했지만 이 문제는 간단한 것도 아니고, 구간도 주어지지 않아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한다.
	29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벡터의 임의의 실수배 끼리의 덧셈으로 일정 영역을 나타내는 것은 교육과정에 없으며** 교과서에도 다루지 않는다.
	30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수식 중 $\sin(f(x))$라는 표현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고 교육과정과 무관한 표현**이므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다. 또한, 삼차함수 $f(x)$의 식을 구하는 과정에서 미분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코사인의 값과 특정 조건 (나) $\frac{1}{g(\alpha_5)}=\frac{1}{g(\alpha_2)}+\frac{1}{2}$로부터 유도된 $\sin(f(\alpha_5))-\sin(f(\alpha_2))=\frac{1}{2}$에 적합한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여러 가지로 그려보면서 각각에 적합한 조건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는 무관한 문제다.

영역	문제 번호	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	미준수 판정 근거
수학 나형	17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f(x)=f(x-3)+4$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식으로 준 것 같지만 이것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이 아니며, 이를 해석하는 것 역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다.**
	20	유리함수 $y=\dfrac{ax+b}{cx+d}$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그래프의 성질을 이해한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점근선 등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과 직선의 기울기 등을 구하는 문제지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가미된 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벗어난 것이다.**
	21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연속함수의 성질과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여 최솟값을 구하는 문제지만, **자연수나 정수 조건이 가미된 것은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다.**
	29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등비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Σ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제시된 성취기준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비수열의 첫째항이 b, 공비가 r일 때, 식 $br(1+r^2)=-20$에서 20의 약수가 1, 2, 4, 5, 10, 20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공비의 값을 구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는 **방정식의 정수해에 관한 것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없다.** 그리고 공비를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일일이 대입하여 풀어야 하는 것으로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문제로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30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성취기준도 하나의 함수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을 구하는 것만 다루는 것으로, 이 문제에 나오는 **이차함수와 삼차함수를 동시에 다루는 접선의 방정식은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다.**

영역	문제 번호	평가원이 제시한 교육과정 근거	미준수 판정 근거
국어 영역	11	**독서와 문법**-(5) 음성, 음운의 세계를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 생활을 한다.	'최소 대립쌍'의 개념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다. 하지만 11번 문항은 [A]의 단어들에서 '최소 대립쌍'에 해당하는 음운을 추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시문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 위반이다.
	31	**독서와 문법**-(18) 필자의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하며 읽는다. **독서와 문법**-(19) 글의 내용이나 자료, 관점 등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다.	31번은 <보기>에 소개된 만유인력을 계산하는 원리와 제시문에 소개된 뉴턴이 만유인력의 실재를 입증하면서 사용한 원리를 바탕으로 ①~⑤번 선지 중에서 만유인력과 관계된 명제가 거짓인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즉 **만유인력의 원리를 추론해 그와 관계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인데,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취기준**이다.
	42	**독서와 문법**-(21) 글의 화제나 주제, 필자의 관점 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다.	42번은 <제시문>과 <보기>에 제시된 글의 내용과 논리학에서 사용된는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반대 관계'는 대학 철학과 논리학 교육과정에서나 배울 수 있는 개념이다. 제시문에서 '모순관계', '가능세계', '현실세계' 등의 개념과 개념을 해설하면서 사용된 내용들도 **대학의 논리학 관련 과목의 전공 지식에 해당하는 '고전 논리'의 '명제의 대당 관계' 나 양상 논리에 나오는 '가능세계 존재론'을 이해하고 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이다.

■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다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수학의 경우 소위 킬러문항으로 불리는 수학 30번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학습노동을 강요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포자로 만드는 폐해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학 가형 30번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 근거를 평가원은 “삼각함수를 활용하여 간단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교수·학습 상의 유의점’ 도 분명하게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는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간단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삼각함수를 활용해 주어진 구간 안에서 해를 구하는 간단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30번 문제의 경우는 주어진 구간이 없어 무한히 많은 해를 구해야 하는 문제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입니다.

[그림2] 2019학년도 수능 킬러문항인 수학 가형 30번 문제

30. 최고차항의 계수가 6π인 삼차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dfrac{1}{2+\sin(f(x))}$이 $x=\alpha$에서 극대 또는 극소이고, $\alpha \geq 0$인 모든 α를 작은 수부터 크기순으로 나열한 것을 α_1, α_2, α_3, α_4, α_5, $\cdots$ 라 할 때,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alpha_1=0$이고 $g(\alpha_1)=\dfrac{2}{5}$이다.
(나) $\dfrac{1}{g(\alpha_5)}=\dfrac{1}{g(\alpha_2)}+\dfrac{1}{2}$

$g'\left(-\dfrac{1}{2}\right)=a\pi$라 할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단, $0<f(0)<\dfrac{\pi}{2}$) [4점]

또한 평가원은 30번 문항을 푸는데 필요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3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재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5개 정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에서는 각각의 성취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풀도록 하고 있지 이렇게 10개 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통합하여 만든 문제를 푸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5개나 되는 성취기준을 인위적으로 조합한 문항은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문항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꼬아 놓으니 EBS 수능 강사도 빠른 속도로 해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데 20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며, 공식 문제 해설서에도 3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 교사들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풀 때 아무리 짧아도 15분 이상 걸리는 문제이며, 다단계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특성 상 한 단계에서 실수하거나 막히면 오답을 내거나 풀이 시간이 30~40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도 문제풀이에 접근한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이며 나머지 학생들은 손도 댈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킬러문항인 것입니다.

[그림 3] EBS가 제공한 2019 수능 수학 가형 30번 문항의 해설

$g'(x)=\dfrac{-\cos(f(x))\times f'(x)}{\{2+\sin(f(x))\}^2}$ 이므로

$g'(x)=0$ 에서

$\cos(f(x))=0$ 또는 $f'(x)=0$

이때, $\cos(f(x))=0$ 에서

$f(x)=\pm\dfrac{\pi}{2}$ 또는 $f(x)=\pm\dfrac{3}{2}\pi$ 또는

$f(x)=\pm\dfrac{5}{2}\pi$ …

그런데 조건 (가)에서

$\dfrac{1}{g(\alpha_1)}=\dfrac{1}{g(0)}=2+\sin(f(0))=\dfrac{5}{2}$ 이므로

$\sin(f(0))=\dfrac{1}{2}$

이때 $0<f(0)<\dfrac{\pi}{2}$ 이므로

$f(0)=\dfrac{\pi}{6}$ ……㉠

따라서 $\cos(f(\alpha_1))=\cos(f(0))\neq 0$ 이므로

$f'(0)=0$ ……㉡

㉠, ㉡에서

$f(x)=6\pi x^3+px^2+\dfrac{\pi}{6}$ (p는 상수)

로 놓으면 조건 (나)에서

$\dfrac{1}{g(\alpha_5)}-\dfrac{1}{g(\alpha_2)}$

$=\sin(f(\alpha_5))-\sin(f(\alpha_2))=\dfrac{1}{2}$ ……㉢

이때, $\cos(f(x))=0$이면

$\sin(f(x))=-1$ 또는 $\sin(f(x))=1$

이므로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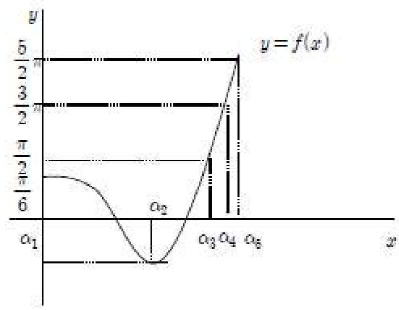
$f'(\alpha_2)=0$, $f'(\alpha_5)\neq 0$

또는

$f'(\alpha_2)\neq 0$, $f'(\alpha_5)=0$

(i) $f'(\alpha_2)=0$, $f'(\alpha_5)\neq 0$인 경우

$x\geq 0$에서 함수 $y=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f(\alpha_5)=\dfrac{5}{2}\pi$이므로

$\sin(f(\alpha_5))-\sin(f(\alpha_2))$

$=1-\sin(f(\alpha_2))=\dfrac{1}{2}$

$\sin(f(\alpha_2))=\dfrac{1}{2}$ …㉣

그런데, $-\dfrac{\pi}{2}<f(\alpha_2)<\dfrac{\pi}{6}$이므로 ㉣을 만족시키는 α_2는 존재하지 않는다.

(ii) $f'(\alpha_2)\neq 0$, $f'(\alpha_5)=0$인 경우 $x\geq 0$에서 함수 $y=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sin(f(\alpha_2)) = \sin\left(-\frac{\pi}{2}\right) = -1$

이므로 $\sin(f(\alpha_5)) = -\frac{1}{2}$이어야 한다.

따라서, $\cos(f(\alpha_5)) \neq 0$ 이므로

$f'(\alpha_5) = 0$

이고 위의 그림에서

$-\frac{7}{2}\pi < f(\alpha_5) < -\frac{5}{2}\pi$

이므로 $f(\alpha_5) = -3\pi + \frac{\pi}{6}$

즉, $f'(x) = 18\pi x^2 + 2px = 2x(9\pi x + p) = 0$

에서 $\alpha_5 = -\frac{p}{9\pi}$ 이므로

$$f(\alpha_5) = f\left(-\frac{p}{9\pi}\right)$$
$$= 6\pi \times \left(-\frac{p}{9\pi}\right)^3 + p\left(-\frac{p}{9\pi}\right)^2 + \frac{\pi}{6}$$
$$= -3\pi + \frac{\pi}{6}$$

$\frac{-2p^3}{3^5\pi^2} + \frac{p^3}{3^4\pi^2} = -3\pi$, $p^3 3^5 \pi^2 = -3\pi$

$p^3 = -3^6\pi^3$

따라서 $p = -3^2\pi = -9\pi$ 이므로

$f(x) = 6\pi x^3 - 9\pi x^2 + \frac{\pi}{6}$

$f'(x) = 18\pi x^2 - 18\pi x$

$$g'\left(-\frac{1}{2}\right) = \frac{-\cos\left(f\left(-\frac{1}{2}\right)\right) \times f'\left(-\frac{1}{2}\right)}{\left\{2 + \sin\left(f\left(-\frac{1}{2}\right)\right)\right\}^2}$$
$$= \frac{-\left(-\frac{\sqrt{3}}{2}\right) \times \frac{27}{2}\pi}{\left(2 - \frac{1}{2}\right)^2}$$
$$= \frac{27\sqrt{3}}{4}\pi \times \frac{4}{9} = 3\sqrt{3}\pi$$

따라서

$a^2 = (3\sqrt{3})^2 = 27$

정답 27

이러한 수능 출제 경향은 수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 문제풀이 방법, 정확하게 푸는 연습, 고난도 문항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을 강조해, 결국 개념은 없고 풀이 방법만 남는 학습 노동 강요로 대부분 학생들을 수포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를 통해 학습을 해야 킬러문항을 풀 수 있다는 불안과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4]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반복적인 문제풀이를 강요하는 사교육 광고

- 자료 출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 국어 영역의 경우 대학 전공 수준의 인문 분야 ‘제시문’과 ‘보기’가 등장해 수험생들이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5급 행정고시 기출 문제를 공부하는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국어 영역의 경우 출제된 문항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내용이 대학 전공 수준의 개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LEET(법학적성시험)’, ‘PSAT(행정고시)’에 출제된 제시문을 공부하며 고난도 제시문에 대한 독해 연습을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2019 수능의 국어영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문항으로 판정된 42번 문항의 제시문과 ‘보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림 5]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의 개념과 내용을 다룬 수능 국어 제시문과 보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명제가 모두 참인 것도 모두 거짓인 것도 가능하지 않은 관계를 모순 관계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임의의 명제를 P라고 하면 P와 ~P는 모순 관계이다.(기호 ‘~’은 부정을 나타낸다.) P와 ~P가 모두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무모순율이라고 한다. 그런데 “㉠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 다보탑은 개성에 있을 수도 있었다.”는 모순 관계가 아니다. 현실과 다르게 다보탑을 경주가 아닌 곳에 세웠다면 다보탑의 소재지는 지금과 달라졌을 것이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P와 ~P가 모두 참인 혹은 모두 거짓인 가능세계는 없지만 다보탑이 개성에 있는 가능세계는 있다고 표현한다.

‘가능세계’의 개념은 일상 언어에서 흔히 쓰이는 필연성과 가능성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P는 가능하다’는 P가 적어도 하나의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며, ‘P는 필연적이다’는 P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는 뜻이다. “만약 Q이면 Q이다.”를 비롯한 필연적인 명제들은 모든 가능세계에서 성립한다. “다보탑은 경주에 있다.”와 같이 가능하지만 필연적이지는 않은 명제는 우리의 현실세계를 비롯한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고 또 어떤 가능세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능세계를 통한 담론은 우리의 일상적인 몇몇 표현들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자. 나는 현실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하는 기차를 놓쳤고, 지각을 했으며, 내가 놓친 기차는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나는 “만약 내가 8시 기차를 탔다면, 나는 지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통 논리학에서는 “만약 A이면 B이다.”라는 형식의 명제는 A가 거짓인 경우에는 B의 참 거짓에 상관없이 참이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 내가 만약 그 기차를 탔다면 여전히 지각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그 기차를 탄 가능세계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 가능세계 중 어떤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지각

42.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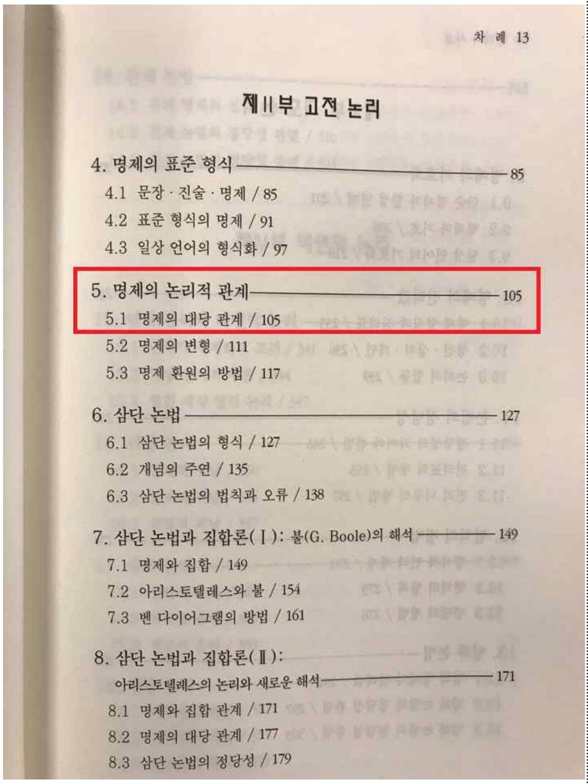
<보 기>

명제 “모든 학생은 연필을 쓴다.”와 “어떤 학생도 연필을 쓰지 않는다.”는 반대 관계이다. 이 말은, 두 명제 다 참인 것은 가능하지 않지만, 둘 중 하나만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인 것은 가능하다는 뜻이다.

※ 빨간색 네모 안에 있는 개념들은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 교재에 등장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는 대비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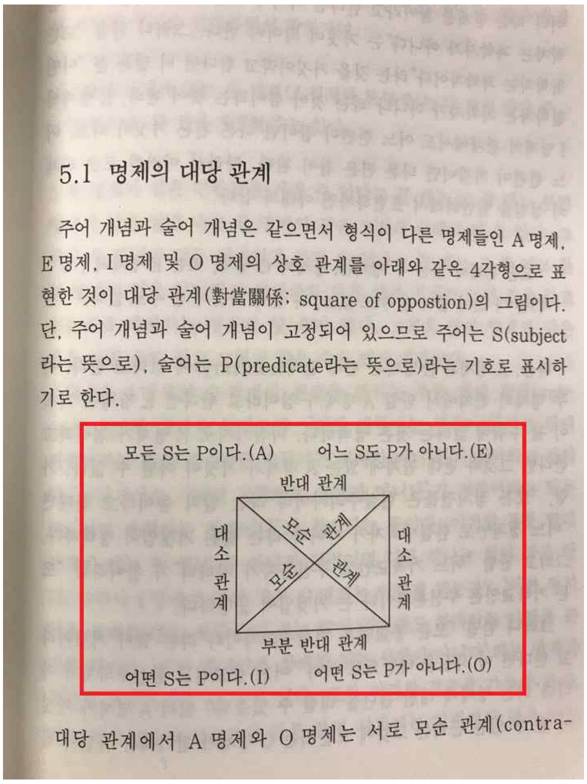
위 문제의 제시문에 사용된 ‘모순 관계’, ‘무모순율’, ‘가능세계’, ‘현실세계’ 등의 개념과 <보기>에서 사용된 ‘반대 관계’와 같은 개념들은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인 논리학 중 고전 논리에서 배우는 ‘명제의 논리적 관계’ 관련 단원 중 ‘명제의 대당관계’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림 6] 수능 국어 영역 42번 문제에 사용된 제시문과 보기의 개념이 나오는 대학 교재



차 례 13

제II부 고전 논리



5.1 명제의 대당 관계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은 같으면서 형식이 다른 명제들인 A 명제, E 명제, I 명제 및 O 명제의 상호 관계를 아래와 같은 4각형으로 표현한 것이 대당 관계(對當關係; square of oppostion)의 그림이다. 단, 주어 개념과 술어 개념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주어는 S(subject라는 뜻으로), 술어는 P(predicate라는 뜻으로)라는 기호로 표시하기로 한다.

대당 관계에서 A 명제와 O 명제는 서로 모순 관계(contra-

– 자료 출처: 「논리와 사고」, 소흥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13p, 105p)

이처럼 독해 난이도가 높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수험생들은 LEET(법학적성시험), MEET(의학교육입문검사),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PSAT(5급 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변형한 수능 심화 문제 대비 교재를 사서 풀거나 사교육 기관의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실정입니다. 즉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대학생이나 대학을 졸업한 취준생의 수험서를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학습 고통은 물론이고 사교육비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림 7] 메가스터디의 국어 신유형 대비 강좌

– 자료 출처: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 사교육걱정은 2019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되어 학생・학부모의 피해가 입증되므로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임. 더불어 수능・학력평가・모의평가・EBS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을 전개할 것임.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2019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해 학교 대비가 불가능한 문제가 출제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정상적인 학교 수업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학생・학부모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2월 둘째 주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송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소송과 수능 문제 분석을 진행하면서 수능문제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행하는 6월, 9월 대수능 모의고사, EBS 수능 연계교재도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사교육걱정은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면서 접하는 국가기관 및 교육청의 시험과 교재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반드시 교육과정을 준수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착수할 것입니다. 더불어 수능 관련 시험을 담당하는 교육청과 국가기관이 고교 교육과정을 준수한 문제를 출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19. 1. 3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
상임변호사 홍민정(02-797-4044/내선번호 506)